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선전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금식을 보시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책망하셨습니다(눅 7:5). 예수님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내 의를 드러내려는 유혹을 경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하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계획과 생각과 때 등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온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마 6:14, 《메시지》 성경). 본문은 주기도문에 붙은 사족이나 부연이 아니라 기도의 정의(definition)로서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강력한 표지입니다. ‘용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특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삶의 변화입니다.

나는 기도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① 나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까?
- ② 참 기도자로서의 표지가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